

의인은 하나도 없다

말씀 : 로마서 2:17-3:20

요절 : 로마서 3: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난 강의에서 바울은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할일을 하게 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자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외식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죄에 대해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처참한 절망중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없는 인간세상에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을 허락하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구주 예수님을 허락하신 성탄의 은혜를 알고, 2019년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7~20절은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자부심은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부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21~23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까만 옷에, 까만 모자, 까만 구두를 교복처럼 착용하고 살아가는 정통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마와 팔에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를 붙이고 그 작은 상자 안에 말씀을 적어두고, 길을 가면서도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기도 합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러나 실상 세계인

들의 눈에 비쳐진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유대인들처럼 돈을 밝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영화나 소설에 고리대금업자로 등장합니다. 지금도 각종 전쟁무기를 팔아먹는 무기상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뉴욕에 증권가를 움직이는 큰 손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우상 신전의 보석까지 밀매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우상숭배를 한 건 아니잖아” 유대인들 가운데 몰래 간음을 행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율법을 자랑했지만 실상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른 하나의 문제는 할례문제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들이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이 되지만 율법을 범하면 할례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치는 도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창17:14) 할례는 안식일과 함께 포로생활 가운데서도 선민의 금지를 갖게 해준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난지 8일이 안식일이라 할례만은 꼭 행했습니다.(요7:22)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할례 받는 것으로 다 된 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의 자부심이 어떠한지 그들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이 죽어서 헤매다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착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떠올라! 하고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할례검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옥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막고 깨우쳐 줍니다. “형제여 번지수가 틀렸네, 그대가 가야 할 곳은 저쪽 천국이라네”(아브라함이 왜 지옥입구에 있는지, 할례검사를 한다는 것도 참 상상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할례는 율법의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할례만 행한다면, 할례의 의미는 빛을 잃고 맙니다. 만약 할례 없이도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할례 받은 사람처럼 여기실 것입니다.(26) 만약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율법 조문을 알고 할례까지

했으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27)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28) 표면적 유대인이란 ‘무늬만 신자’를 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증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 신앙생활 10년차야, 20년차야, 난 모태 신앙이야’ 겉으로 드러난 경력이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주는 티켓이 될 수는 없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는 말씀은 겉모습을 바꾸는 것이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어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난 위기중의 하나는 ‘무늬를 중요시하는 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에서 대형교회로의 쏠림현상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20세기에는 개척 교회에서 복음역사의 일군이 되어 좌충우돌하면서 연단도 받고 실제적인 믿음을 체험하는 것을 축복으로 아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을 시설도 열악하고 요구받는 것도 많고 사람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구차한 신앙생활로 보는 시각들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쿨하게 신앙생활하고자 대형교회로 몰려가는 분위기입니다. 신자는 많은데, 주와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신앙의 구경꾼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표면적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29절을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이 표면적 유대인으로 끝나버린 것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할례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번 고생하고 끝나면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마음의 할례는 했는지 안했는지 드러나지 않으며, 한번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악이 올라옵니다. 어제 비방하는 말을 회개했는데 오늘 음란의 죄가 올라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신앙의 년수를 더할수록 염려와 두려움과 탐욕을 물리치기 위해 더욱 깨어있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사람은 형식주의와 외식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오직 이면적 기독교인은 마음을 찢고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회개는 자기 유익과 자기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향해 앞세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무게로 번민할 때에 두려움을 찢고 자기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인간갈등이 부딪혀 올 때, 감정대로 행동하고 싶은 웅졸한 마음을 찢고, 섭리와 주권 편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좁아진 마음을 찢어 넓혀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섬기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진실하게 내 영혼 깊숙이 들이키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열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참된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목자들에게는 말씀의 권세를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을 힘있게 돕게 하십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나갈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습관적, 타성적으로 살아가는 표면적 신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생활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할례가 구원의 표시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유대인의 나움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란 말입니까!’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3) 하나님이 다 믿게 하셔야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들이 자기들이 교만하여 믿지 않으면서 괜히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그럴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인간이 교만하여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인류구속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또 어떤 자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잖아요(5)” “내가 거짓

말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난다면 내가 심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7)”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도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8)”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유다같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역사가 있었죠. 가룟유다가 공로자 아닙니까. 빛나는 조연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인생소감이 드라마틱하고 은혜로운 것 아닙니까?” “요즘 은혜가 좀 없는데 화끈하게 죄 좀 짓고 돌아와서 드라마틱하게 소감 쓰면 안될까요?”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8b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칼빈은 이런 자들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리화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의 지배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모든 인간이 중력의 지배 아래 사는 것처럼,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10-12절도 다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10절, 12절 두 번 강조되었습니다. 없다는 말씀은 총 4번 나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이 분명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날개 없는 천사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신앙생활 초기에 가졌던 물음표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년수를 더할수록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제 자신을 봐도,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날이 갈수록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거기서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슬픈 현실입니다.

인간의 속사람이 어떠합니까! 바울은 13~18절 말씀으로 인간의 죄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바울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시편과 이사

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간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13) (시5:9절) 열린 무덤에서 시체가 썩어 악취가 올라오듯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이 마음속 밀바닥에서 꾸역꾸역 올라옵니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시140:3절)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고 뒤집기를 잘하며, 사람을 파괴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14) (시10:7) 격려하는 말보다 악플 달기를 좋아하고 남이 잘되는 것보다 무너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15) (사59:7),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며(16).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17) 그들은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18) (시36:1)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해 전했던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성경이 인간을 너무 어둡고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나 잘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도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다. 캠퍼스의 학생들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BTS는 미국의 빌보드차트를 점령해 버렸고, 세계곳곳에 가는곳마다 놀라운 팬덤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은 미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최고의 시청률에 올라 한국의 놀라운 통찰력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도, 인간의 간헐적인 의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살만한 것이 아닌가하는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학문명이 더 발달해서 인공지능기들로 인해 수명이 대폭늘어가고, 문화가 더욱 꽃이 피면 인간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의인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가 오늘날 세상의 선포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의인이 없다고 말한 후 2,000년이나 시대가 흘렀는데 이제 이 말씀은 업데이트가 되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의 실상은 이러한 외적인 화려함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을 변화시켜 보고자 사람들은 많은 애를 씁니다. 수많은 교육학자, 심리학자들이 동원이 되어서 연구를 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또 수많은 지식인들이 책을 쓰고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 내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피력합니다. 그러나 그 엘리트 지식인들조차 사생활을 파헤쳐 보면 추악한

죄들이 들어납니다.

영국의 사학자인 폴 존슨이 쓴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위대한 명성 뒤에 가려진 지식인들의 이중성을 파헤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철학에 한 획을 그은 루소는 자신의 자식들 7명을 모두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습니다. 톨스토이는 사창가를 드나들면서도 여성과의 교제가 사회악이라고 여길 만큼 비정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헤밍웨이는 병적일 정도로 거짓말을 잘하였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계약결혼을 주장하며 페미니즘의 원조처럼 행세했지만 실상은 여성을 인간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할 정도로 남성우월주의자였습니다. 공산주의를 주창한 칼 맑스는 정부를 착취계급의 앞잡이로 매도하면서도 자신은 정작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였습니다. 부르조아 계급이 노동자들을 착취한다고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집에 가정부를 45년 동안 무임금으로 착취하였습니다. 또한 그 가정부를 임신하게 하여 사생아를 낳은 파렴치한 자였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고상한 작품을 써서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성병에 걸릴 정도로 여자관계가 복잡하였습니다. 폴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인 얼굴에 가려진 그들의 또 다른 모습은 추하고 악하고 어리석고 타락해 있었다” 겉으로 볼 때는 더없이 고상하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나 써 놓은 책들을 보면 정말 매력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내면을 들추어 보면 그들도 보통사람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이 말하는 바는 3:10-18절에서 살펴 본 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20)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감히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면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죽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임

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깊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의 탈을 벗고, 병든 모습 그대로, 추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8-10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기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2:17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어찌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까. 죄로 병든 모든 인생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려 오셨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1:29)”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죄의 누더기 옷을 벗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예수님께 나아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낱새나고 추한 죄악된 인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땅에 임마누엘 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죄악된 인간들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2019년 성탄절을 앞두고, 구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